

<2012년 4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해당되는 차원의 마음밖에 안 된다.
2. 휴지를 가지고서 화장실을 가는 데 쓸 수밖에 없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쓸 수밖에 없다.
3. 인간이 천국에 가는 삶을 살려면, 구세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
4. 같은 엔진이라도 자전거 엔진, 차 엔진, 비행기 엔진이 다르다.
5.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짐승보다 더 나은 정도다.
6.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에서 사니, 인간의 마음을 세상에서 사는 수준 정도로만 창조해 놓으셨다.
7. 그러나 인간의 영이 천국에 가서 살게 하려면,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
8. 육의 마음과 생각은 흐릿하고 확실성이 없다.
9. 영의 마음과 생각이 또렷하고 확실하다.

10.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에게 와야 확실한 마음이 된다.
11. 사람의 흐릿한 마음은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또렷해진다.
12. 확실한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을 위해 실천해야 마음이 또렷해지고 확실해진다.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흐릿하다고 기도할 때)
13.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행할 때 더욱 확실해진다.
14.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확실해진다.
15. 몸으로 행하여 피부로 느껴야 생각이 확실해지고 강해진다.
16. 영으로 보고 듣고 느낄 때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확실해진다.
17. 육의 생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몸에 닿을 때만 자극적으로 느껴진다. 고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몸에서 떨어지면 뇌에서 잊게 되어 생각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 아예 생각조차 없어진다.
18. ‘살아 있는 실천 교육’이란, 듣는 자의 뇌에 행하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넣어 주어 실천하게 해 주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교육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19. 한두 번 가르치며 교육해 주는 것은 교육하고 가르치는 자의 임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

20. 주님이 몸으로 쓰는 자의 교육과 가르침은 상대의 뇌에 가르친 것을 온전히 입력시켜 그것을 실천하게 해 주기까지 하는 교육이다. 그는 참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

21. ‘배우고 아는 시험’은 일시적인 것이다. ‘행하는 시험’이 매일 이루어져야 제대로 배운 자다.

22. ‘이론’은 아는 것이고, ‘실천’은 얻는 것이다.

23. 아는 자는 많아도 그것을 실천하여 얻는 자는 드물다.

24. 아는 것은 순간에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실천을 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

25. 아는 것은 순간이고, 실천은 긴 시간이다.